

월둔굴 지역의 지리환경

한국생활환경연구원 부원장 홍승달

I. 서론

月屯窟은 그 성인상으로 보아 종유동굴 즉 석회동굴이다.

한편 月屯窟은 수직동굴이기도 하다. 땅 밑으로 그대로 하각침식하면서 땅 천정의 낙반등으로 땅속으로 깊게 파고 들어간 수직동굴이다. 즉, 커다란 광장이 땅속에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.

대체로 동굴 사면 통로 부근의 경사도는 보통 60~70°로 급경사이고, 이것도 밑바닥으로 내려서면 글자 그대로 오버행을 이루는 동굴인 것이다. 또한 이 月屯窟은 흡인형 동굴이다. 이 동굴은 산지 경사면에 뚫려있는 수직 구멍이 점차 넓어지면서 밑으로 발달생성시킨 동굴이다. 따라서 빗방울도 물줄기도 이 동굴입구에 해당 개구부를 통하여 계속 동굴속에 스며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흡인형 동굴이라고 본다. 그리고 이 月屯窟의 수직으로의 직선 길이는 대체로 130m 밖에 안되는 동굴이나 동굴의 내부가 매우 넓고 크기 때문에 300m 이상 관광통로의 시설이 가능하다. 이밖에도 동굴의 지형 지물들은 매우 다양하고 장엄하다.

이 동굴이 비록 내륙계곡 개석 산지의 정상부 지점에 있다고 하나 동굴의 지형지물의 갖가지가 모두 배태시키고 있기 때문에 석회동굴이 갖는 갖가지 동굴퇴적물이 전시되고 있는 동굴퇴적물인 것이다.

II. 단지의 지형

1. 지형 개관

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산간오지의 심신산골에 해당한다. 태백산의 굳건한 산줄기가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남과 북으로 뻗고 있는데 바로 이 등뼈산맥인 태백산맥 내륙산간 지역의 하천수가 깊게 하각 침식을 하여 이루어진 장년기 지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.

Ⅲ. 단치부근의 산업 및 지리이용

하장면의 1989년 산업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 경지면적 1,393ha중 밭이 1,303ha로 93.5%를 차지하고 있다. 가구당 경지면적으로 보면 154ha로 삼척군에서 가장 넓다. 특히, 가구당 밭면적은 144ha로 군 평균 70ha에 비하여 2배를 넘는 가구당 밭면적을 갖고 있다. 밭의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작물은 주로 미곡보다는 잡곡, 두류 및 서류 생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.

Ⅳ. 단치부근의 교통

하장면의 도로현황은 연장 77.7km로 포장되는 3.4km(4.4%)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비포장도로이다. 이 중 일반국도는 총연장 29.9km, 지방도 30.8km, 군도 17.0km이다. 남한강의 상류인 하장강은 면의 중앙부를 북서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총연장거리 622.4km의 17개의 교량이 가설 되었다.

자동차 등록현황은 자동차수는 총 50대인데 자가용 승용차 7대, 버스 9대, 자가용 화물차 33대로 자가용 화물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

Ⅴ. 결론

이 月屯窟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자연환경면에서 볼 때 내륙성과 산악성을 띄우고 있는 환경생태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. 그리고 산간분지속에 소규모의 개발지 밖에 없는 계곡분지지역에 해당한다. 즉, 인문환경면에서 볼 때에 소규모 밭농사를 위주로 하는 농업인구가 주이며, 단치지역 부근에 산재하고 있는 소규모 광산에서 겸업하거나 종사하는 주민구성도 볼 수 있다. 따라서 안정된 생활환경이 못되고 있고 또한 주민경제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. 그러므로 月屯窟을 중심으로 하는 동굴지역을 관광단지화 하여 이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.